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직업가치인식, 적응자원이 대학생 적응수준에 미치는 영향

김문정 · 강경자*
(부경대학교 · *제주대학교)

The Influence of Calling, Work Values and Adaptation Resources on the Nursing Students' College Adjustment

Moon-Jeong KIM · Kyung-Ja KA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Nursing students are exposed to a variety of stress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college adjustment related to calling, work values and adaptation resources. The survey conducted in three nursing colleges (n=313) from 18th November to 30th December in 2015.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SPSS/Win 21 software. 41.9% of variance in college adjustment was accounted for by purpose/meaningfulness($t=6.871, p<.001$), emotional stability($t=6.224, p<.001$), altruism ($t=2.708, p=.007$), school year(4th)($t=3.073, p=.002$), Hospitals in affiliation($t=2.822, p=.005$), GPA($t=2.558, p=.011$). The mod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ining 41.9% of the variance($F=17.843, p<.001$). This study suggests that a strategy increasing college adjustment for nursing students, is needed to consider purpose/meaningfulness, emotional stability, altruism.

Key words : Calling, Work value, Nursing, Student, College adjustment

I. 서론

간호사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막중한 책무를 진다. 간호대학생이 장차 간호전문직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려면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잘 적응하면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들을 성취해 나가야 한다.

한편, 간호대학생은 전문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술기를 익히게 되는데, 실습과정동안 환자가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수행하면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Seyedfatemi · Tafreshi & Hagani, 2007). 간호대학생들은 실습기간 동안 부여되는 과도한 과제나 업무 등으로 임상실습에 따른 스트레스를 겪으며, 심지어는 이로 인해 실습이 두려워지고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어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끼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도 한다(Whang Sung-Ja, 2006). 간호대학생의 대학생생활 부적응 상태를 방지하게 되면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간호인

* Corresponding author : 064-754-3752, kkyungja@jejunu.ac.kr

※ 이 논문은 2016 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력이 배출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게 된다. 최근 청년실업시대에 졸업 후 취업률은 학과나 전공 선택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간호학과에서도 본인의 적성이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높은 취업률에 유인되어 진학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학습에 흥미를 상실하여 결국 대학생활의 부적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Yang Kyung-Hee · Lee Jeong-Ran & Park Boc-Nam, 2012).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심리적 안녕감, 대처방식, 임상실습 스트레스(Kim Eun-A & Jang Keum-Seong, 2012)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자기결정적인 입학동기와 높은 대학생활만족도, 높은 연령, 좋은 건강상태인 경우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높았다(Lee Young-Ran · Kim Sun-Hee & Chu Min-Sun, 2013).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Ga-Ryoung (2014)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수준은 거주지, 성격, 신체건강, 입학동기, 대학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스트레스와 문제중심 대처방식과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소명의식은 일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그 속에서 의미와 목표를 추구하며, 그로 인해 사회의 공공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Dik & Duffy, 2009).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과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rzesniewski · McCauley · Rozin & Schwartz, 1997). 다양한 직군의 직장인들 외에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명의식은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Duffy · Allan & Dik, 2011), 소명의식 중점 워크숍과 전통적 직업개발 워크숍 이후 대학생들의 소명의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Steger & Dik, 2009). 소명의식은 대학생의 학업만족도나 대학생활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적인 관리와 계발을

통해 향상이 가능하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명의식의 영향을 파악한 연구(Park Sun-Young, 2012; Yoo Jae-Yong · Park Ju-Young & Woo Chung-Hee, 2015)는 많지 않았다.

가치는 삶의 원칙을 제공하는 삶의 목표 또는 기준으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Rokeach, 1973). 또한 가치는 개인의 인지체계와 성격 형성,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가진 개념이다(Dose, 1997; Rokeach, 1973).

직업가치는 직업과 진로에 대한 가치로써(Zytowski, 1970) 특정 직무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한 개인이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이며(Wollack · Goodale · Wijting & Smith, 1971) 개인의 삶과 진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Liu & Lei, 2012). 직업가치는 내재적, 외재적 직업가치로 구분된다. 내재적 직업가치는 자기실현, 성취, 창의성 등에 대한 가치이며, 외재적 직업가치는 경제적 보수, 명예, 안전성 등에 대한 가치이다(Kalleberg, 1977). 내재적 직업가치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주관적 안녕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외재적 직업가치는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을 저하시키며 일-가정의 갈등, 정서적 소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Vansteenkiste · Neyrinck · Niemiec · Soenens · Witte & Broeck, 2007). 직업가치가 개인의 직업과 관련된 만족이나 안녕감의 요인인 점을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이 간호 전문직에 대해 인식하는 가치는 전공만족도나 대학생활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나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원은 개인의 신체와 심리 욕구를 충족하고 유능감과 통제감을 얻는데 도움을 준다(Diener & Fujita, 1995). 그리고 심리적 기능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을 감소시켜 안녕감을 촉진한다(Holahan & Moos, 1990).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은 매우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다양한 요구들이 수반되며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적응자원의 유무가 결과적으로 적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Kim Eun-Jeong, 1992). 선행연구에서 정서안정, 학습전략, 사회적 유능성으로 구성된 대학생의 적응자원은 적응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Lee Kyung-Ah · Shin Hae-Lin · Yoo Na-Hyun & Lee Ki-Hak, 2008).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적응자원이 대학생활 적응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Whang Sung-Ja, 2006).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고 사회에 유능한 간호인력을 배출해야 하는 간호교육기관의 중요한 책무와 닿아 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향요인들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직에 대한 소명의식과 직업가치인식, 적응자원이 대학생활 적응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II. 조사방법 및 내용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직업가치인식, 적응자원이 대학생활 적응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와 J지역 3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으로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3. 연구 도구

가. 소명의식

소명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소명 척도(Calling and Vocational Questionnaire Korean version: CVQ-K)를 사용하였다. CVQ-K는 Dik · Eldridge & Steger(2008)가 제작한 CVQ를 Shim Ye-Rin & Yoo Sung Kyung(2012)이 한국어로 번역, 수정한 것이다. 3 개 하위요인(초월적 부름, 목적/의미, 친사회적 동기)에 각 하위요인 당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4=전적으로 해당된다)로 점수가 클수록 소명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내적합치도 계수(α)는 .85이었고,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r)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88이었다.

나. 직업가치

직업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Super(1970)가 개발하고 Miller(1974)가 수정, 보완한 직업가치 척도(Work Values Inventory: WVI)를 국내에서 Jeong Eun-Ju(2005)가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총 24문항으로 내재적 직업가치에 해당하는 3개 요인(성취성, 이타주의, 창의성)과 외재적 직업가치에 해당하는 5개 요인(경제보수, 독립성, 명예심, 생활방식, 안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클수록 직업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Jeong Eun-Ju(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다. 대학생활 적응자원

대학생활 적응자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 Kyung-Ah · Shin Hae-Lin · Yoo Na-Hyun & Lee Ki-Hak(2008)이 대학생들의 학교적응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한 '간편 대학생활적응척도' 가운데 하부척도인 적응자원 4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정서안정성 20문항, 사회적 유능성 8문항, 학습전략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5점 리커

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클수록 적응자원이 많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값이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6으로 나타났다.

라. 대학생활 적응수준

대학생활 적응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 Kyung-Ah et al.(2008)이 대학생들의 학교적응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한 간편 대학생활적응 척도' 가운데 하부척도인 적응수준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공만족 5문항, 대인관계 4문항, 학업적응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클수록 적응수준이 높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값이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4. 자료 수집

자료수집 전에 B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IRB Number : 1041386-20151118-HR-014-03). 2015년 11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온라인 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기밀 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이름이나 식별번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연구자와 자료조사원이 재직하고 있는 3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학생들의 연구 참여에 대한 허락을 얻은 후, 각 학년 단체 카톡방에 연구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각 학년 대표에게 협조를 구하였다. 학생이 안내문을 읽고 링크된 URL을 클릭하면 온라인 조사 사이트로 들어오게 된다. 그 후 학생이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조사방법, 연구윤리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읽고 '동의함'을 클릭하면 본격적으로 설문조사가 시작된다. 모든 질문에 응답한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설문조사가 완료된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답으로 연구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통계프로그램 SPSS 21을 사용하여 설문지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연구변수들의 수준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수준의 차이를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방법을 이용하였다.

셋째,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소명의식과 직업가치, 대학생활 적응자원이 적응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수준의 차이

대상자의 90.4%가 여성이었고, 재학 학년은 3~4학년이 60.7%로 1~2학년의 39%에 비해 많았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61%)이었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많았다. 대상자의 63.9%는 스스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였으나, 나머지는 부모나 친척의 뜻에 따라 진학하였다. 현재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에 부속병원이 있는 대상자는 39%, 없는 대상자는 61%이었고, 현재까지의 누계평균평점은 3.0~3.99가 70.3%로 대부분이었다. 대상자가 희망하는 취업지는 병원이 81.8%이었으며 보건소가 12.1%, 산업체와 학교를 포함한 기타가 5.5%이었다. 희망 취업지로 병원을 선택한 대상자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의 병원에 취업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대학·종합병원이 74.4%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병원 9.3%, 중소병원과 전문·특성화병원을 포함한 기타가 4.8%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수준의 차이

를 보면, 재학 학년(F=6.840, $p<.001$), 진학 시 의 사결정자(F=6.592, $p<.001$), 부속병원 유무($t=3.601$, $p<.001$), 누계평균평점(F=5.961, $p<.001$), 희망 취업지(F=6.046, $p=.003$), 희망 취업병원(F=5.483, $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스스

로 간호학과 진학을 결정하였고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교에 4학년에 재학 중이며 누계평균평점이 4.0~4.5이고 병원, 특히 대학·종합병원에 취업하기 원하는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Table 1>).

<Table 1>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313)

Variables	Classification	n	%	College adjustment	
				M±SD	t/F(p) Scheffé
Sex	Male	30	9.6	3.46±0.64	-0.680(0.497)
	Female	283	90.4	3.53±0.03	
School year (grade)	First ^a	52	16.6	3.36±0.50	6.840(<.001) b,c<d
	Second ^b	70	22.4	3.39±0.60	
	Third ^c	142	45.4	3.45±0.52	
	Fourth ^d	48	15.3	3.79±0.49	
	Missing	1	0.3		
Religion	Protestant	55	17.5	3.60±0.52	1.115(.343)
	Catholic	19	6.1	3.50±0.30	
	Buddhism	45	14.4	3.40±0.56	
	None	191	61.0	3.53±0.57	
	Miscellaneous	3	1.0	3.52±0.55	
Decision maker of major	Oneself ^a	200	63.9	3.60±0.50	6.592(<.001) a>b>c
	Parents/Relatives ^b	102	32.6	3.44±0.59	
	Miscellaneous ^c	10	3.2	2.92±0.59	
	Missing	1	0.3		
Hospital in affiliation	Yes	122	39.0	3.66±0.58	3.601(<.001)
	No	191	61.0	3.43±0.51	
Grade Point Average	~2.49 ^a	9	2.9	3.02±0.70	5.961(<.001) a,c<e
	2.5~2.99 ^b	26	8.3	3.55±0.52	
	3.0~3.49 ^c	122	39.0	3.43±0.54	
	3.5~3.99 ^d	98	31.3	3.59±0.52	
	4.0~4.5 ^e	50	16.0	3.77±0.47	
	Missing	8	2.5		
Wanted employment areas	Hospital ^a	256	81.8	3.57±0.54	6.046(.003) a>b
	Public health center ^b	38	12.1	3.26±0.52	
	Miscellaneous ^c	17	5.5	3.43±0.55	
	Missing	2	0.6		
Classification of hospital	National/Public ^a	29	9.3	3.32±0.52	5.483(.005) a<b
	University/General ^b	233	74.4	3.60±0.52	
	Miscellaneous ^c	15	4.8	3.04±0.90	
	Not applicable	36	11.5		

2. 소명의식, 직업가치, 대학생활 적응자원 과 적응수준의 정도

대상자가 지각한 소명의식의 수준은 평균 2.35 점으로 중간점수보다 약간 높았다. 하부요인별로는 친사회적 지향, 목적/의미, 초월적 부름 순으로 높았다. 대상자가 지각한 직업가치 수준은 외재적 직업가치가 평균 4.05점, 내재적 직업가치가 평균 3.85점으로 외재적 직업가치가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중간점수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자원은 평균 3.06점으로 중간점수보다 높았으며 정서안정성, 사회적 유능성, 학습 전략 등 세 개 하부요인의 점수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학생활 적응수준은 평균 3.52점으로 중간점수보다 높았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전공만족, 대인관계, 학업적응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Table 2>).

3. 소명의식, 직업가치, 대학생활 적응자원 과 적응수준 간의 상관관계

소명의식, 내재적·외재적 직업가치, 대학생활적응자원의 하부요인과 대학생활 적응수준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명의식 중에는 초월적 부름, 목적/의미, 친사회적 지향, 내재적 직업가치 중에는 성취성과 이타주의, 외재적 직업가치 중에는 명예심, 대학생활 적응자원 중에는 정서안정성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대학생활 적응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대학생활 적응수준 영향요인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수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활 적응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재학 학년, 진학 시 의사결정자, 부속병원 유무, 누계평균평점, 희망 취업지, 희망 취업병원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던 초월적 부름, 목적/의미, 친사회적 지향, 성취성, 이타주의, 명예심, 정서안정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상대적 기여가 큰 순서대로 정리하면, 목적/의미($t=6.871, p<.001$), 정서안정성($t=6.224, p<.001$), 이타주의($t=2.708, p=.007$), 재학

<Table 2> Degree of the Variables

Variables	Min-Max	Mean±SD	Variables	Min-Max	Mean±SD
Calling	1.17-4.00	2.35±0.55	Prestige	1.33-5.00	3.77±0.72
Transcendent summons	1.00-4.00	1.85±0.74	Independence	2.00-5.00	4.10±0.82
Purpose/meaningfulness	1.00-4.00	2.50±0.68	Income	1.33-5.00	4.39±0.64
Pro-social intentions	1.00-4.00	2.69±0.54	Adaptation resources	2.26-4.36	3.06±0.27
Intrinsic work value	2.22-5.00	3.85±0.55	Emotional stability	1.10-5.00	3.04±0.58
Creativity	1.00-5.00	3.28±0.85	Social competence	1.63-4.75	3.06±0.59
Altruism	1.00-5.00	4.14±0.66	Study strategies	1.83-4.08	3.06±0.35
Achievement	2.00-5.00	4.12±0.62	College adjustment	1.44-4.77	3.52±0.55
Extrinsic work value	2.40-5.00	4.05±0.49	Satisfaction of major	1.00-5.00	3.72±0.76
Lifestyle	2.00-5.00	4.01±0.62	Interpersonal relationship	1.50-5.00	3.56±0.69
Security	1.67-5.00	3.99±0.62	Academic adjustment	1.67-4.83	3.29±0.61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TS	PM	PSI	AC	AL	CR	IC	ID	PR	SE	LS	ES	SC	SS
PM	.61**	1												
PSI	.49**	.62**	1											
AC	.17**	.33**	.29**	1										
AL	.26**	.40**	.46**	.59**	1									
CR	.26**	.24**	.25**	.42**	.29**	1								
IC	-.12*	.02	.07	.42**	.29**	.11	1							
ID	.02	.08	.12*	.34**	.28**	.36**	.30**	1						
PR	.23**	.33**	.32**	.65**	.51**	.38**	.39**	.29**	1					
SE	.09	.17**	.15**	.61**	.40**	.25**	.49**	.28**	.52**	1				
LS	.14*	.29**	.29**	.58**	.45**	.46**	.42**	.43**	.51**	.51**	1			
ES	-.06	-.046	-.16**	-.12*	-.08	.02	-.04	-.06	-.07	.01	-.06	1		
SC	.13*	.09	.19**	.05	.10	.11	-.05	.07	.16**	.08	.05	-.32**	1	
SS	.15**	.18**	.18**	.11	.08	.09	.06	-.04	.11	.07	.12*	-.16**	.42**	1
CA	.25**	.48**	.23**	.25**	.34**	.16**	.06	.11*	.23**	.05	.17**	.24**	-.14*	.03

* $p < .01$, ** $p < .001$

TS: Transcendent summons, PM: Purpose/meaningfulness, PSI: Pro-social intentions, AC: achievement, AL: altruism, CR: creativity, IC: income, ID: independence, PR: prestige, SE: security, LS: lifestyle, ES: emotional stability, SC: social competence, SS: study strategies, CA: college adjustment

학년($t=3.073$, $p=.002$), 부속병원 유무($t=2.822$, $p=.005$), 누계평균평점($t=2.558$, $p=.011$)이 유의도 0.05 수준에서 대학생활 적응수준의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7.843$,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1.9%로 나타났다 (<Table 4>).

IV. 논 의

본 연구는 직업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인 직업 가치와 전공에 대한 소명의식, 적응자원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강조되는 소명의식에 대하여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소명의식의 하부 개념 수준과 내외적 일의 가치, 적응자원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상시

키는 전략의 기초 자료로써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학년(4학년), 4.0 이상의 성적, 실습 때 소속병원의 존재, 소명의식의 하부개념인 목적과 의미, 내재적 일의 가치를 표현한 하부항목 중 이타주의, 그리고 적응자원의 하부 항목인 정서 안정성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41.9% 설명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점수는 평균 2.35점으로, 다양한 다른 보건계열 대학생(Yoo Jae-Yong et al.(2015)의 2.65점보다 낮았으며, 같은 대상자인 간호대학생 132명을 대상으로 소명의식의 수준을 조사한 Park Sun-Young(2012)이 보고한 2.55점보다도 다소 낮았다. 알려진 바 소명의식은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가지는 인식 중 하나로, 일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그 속에서 의미와 목표를 추구하며, 그로 인해 사회의 공공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를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Adjustment

Variables(reference group)	B	SE	β	t	p
(constant)	1.156	.251		4.600	<.001
School year(4 th)	.222	.072	.148	3.073	.002
Chooser of major(oneself)	.101	.052	.088	1.944	.053
Employment field(hospital)	.044	.083	.030	.531	.596
Hospital type(University/General)	.127	.073	.100	1.736	.084
GPA(4.0~4.5)	.175	.068	.118	2.558	.011
Hospitals in affiliation	.157	.056	.139	2.822	.005
Transcendent summons	-.007	.042	-.010	-.169	.866
Purpose/meaningfulness	.362	.053	.449	6.871	<.001
Pro-social intentions	-.115	.061	-.114	-1.881	.061
Achievement	-.020	.059	-.022	-.335	.738
Altruism	.135	.050	.162	2.708	.007
Prestige	.044	.047	.057	.927	.355
Emotional stability	.268	.043	.281	6.224	<.001

Adjusted R²=.419, F=17.843, p<.001

의미(Dik & Duffy, 2009)하는 것으로, 종교성과 상관없이 일에 대해 가지는 목적지향적인 태도로 확장되어 사용(Elangovan, Pinder, & McLean, 2010)되고 있다. 또한 치위생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명의식이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주는 것(Park, Jeong-Ran & Kim, Hae-Sun, 2012)뿐 아니라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도 유의한 상관관계(Lea, Eun-Kyoung, 2011)가 보고되어 향후 간호학생의 소명의식 제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소명의식의 하부개념을 보면 친사회적 성향이 가장 높아 2.69점이었고 초월적 부름은 가장 낮은 1.85점이었다. 이는 Park, sun-young(2012)의 연구에서 목적/의미점수가 가장 높고 친 사회적 성향은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이 차이는 연구대상자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종교에 대한 중요도 비율이 69.6%로 높은 대상자들이 많았던 반면(Park, sun-young, 2012), 본 연구는 60%이상이 무교로 종교적 특성이 달랐다. 또한 소명의식의 하부개념 중 목적/의미가 유의한

변수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삶에서 특정 역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일과 관련된 활동을 더 넓은 삶의 목적과 의미와 연결시키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Shim, Ye-Rin & Yoo, Sung-Kyung, 2012). 즉 진로는 내 삶에 대한 의미의 중요한 부분이고, 삶의 목적에 이르는 길로써 목적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Park, sun-young, 2012)로 인지하기 때문에 목적/의미 점수가 가장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Park, sun-young, 2012)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보건의료계열 중 의대 예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부터 본과 승급 직전까지의 소명의식 점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Duffy, Manuel, Borges, & Bott, 2011)을 보였으며, 국내 의과대학생들의 지원동기를 분석했을 때 소명의식은 9.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Kim, Ji-Young et al., 2004). 이런 결과는 의학과 학생들과 간호대학생 모두에게 소명의식은 매우 필요한 인성임을 감안할 때 소명의식을 형성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구

체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내재적 일의 가치 하부 항목 중 이타주의와 적응자원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이 대학생활 적응수준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대처방식이 직접적으로 또는 정서적 안정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준다(Kim, Young-Sun & Seo, Ji-Yeong, 2015)는 결과와 정서적 안정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Joo & Bang, 2006)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Lee, Ji-Youn(2006)은 청소년들이 일의 가치를 내재적 가치보다는 일에 따르는 물질적 보상이나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재적 가치에 비중을 둔다고 하여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적응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고자 대처행동을 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필요한 내적 자원 증진을 제공하고 적응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성적과 재학 학년, 실습병원의 존재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간호학과 2~3학년 때 보다 4학년이 되면 임상실습 경험과 이론교육을 거치면서 점차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이 잘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신입생이 학교생활의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4.0이상 성적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전 학기 성적이 대학생활적응의 유의한 변수(Yoo, Jae-Yong et al, 2015)로 보고한 것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 중 주목해서 볼 영향요인은 실습병원의 존재이었다. 간호대학생들에게는 전문적 지식습득을 위한 학습 양이 많고 실습으로 인해 병원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실습병원의 부재는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Whang, Sung-Ja, 2006)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Park, Hyun-Joo & Jang, In-Sun, 2010). 간호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은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도 중요한 예측인자로 보고된 바(Sung, Mi-Hae, 2012)있어 부속 실습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실습지의 확보는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즉 대학생활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자아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학생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모색(Kim, Young-Sun & Seo, Ji-Yeong, 2015)이 매우 중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 관련변수으로써 소명의식, 직업가치, 내적자원이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결과 소명의식의 하부 항목인 목적/의미, 내적 직업가치의 하부 항목인 이타주의, 적응자원으로서 정서안정성, 재학 학년, 실습부속병원의 존재, 누계학점의 순서로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의 41.9%를 설명하였다.

점차 대학진학 시 학과의 선택 영역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나 의미, 적성을 고려한 학과선택보다는 취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었다. 발달 단계상 청소년기의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로 미래에 삶을 꾸리기 위해 직업과 학문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명의식 형성과 내재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응자원으로써 정서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간호대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3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을 토대로 한 결과이므로 일반화하는데 신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활적응 영향요인의 특성이 다차원

적이므로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반복연구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명의식에 대한 심화 연구가 추후 더 필요하며, 간호대학생들이 직업의 가치, 의미, 목적을 탐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소명의식과 직업의 가치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학의 비교과과정의 일부로 제공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중단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Diener, E. & Fujita, F.(1995). Resources, personal striving and subjective well-being: A nomothetic and idiographic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26-935.
- Dik, B. J. & Duffy, R. D.(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ling Psychologist*, 37, 424-450.
- Dik, B. J. · Eldridge, B. M. & Steger, M. F. (2008). Development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 Dose, J. J.(1997). Work values: An integrative framework and illustrative application to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0, 219-240.
- Duffy, R. D. · Allan, B. A. & Dik, B. J.(2011). The presence of a calling and academic satisfaction: Examining potential mediat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1), 74-80.
- Duffy, R. D. · Manuel, R. S. · Borges, N. J. & Bott, E. M.(2011). Calling vocational development and well being: A longitudinal study of medica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 361-366.
- Elangovan, A. R · Pinder, C. C. & McLean, M.(2010). Callings and o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3), 428-440. doi:10.1016/j.jvb.2009.10.009
- Holahan, C. J. & Moos, R. H.(1990). Life stressors, resistance factors and improves psychological functioning: An extension of the stress resistance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909-917.
- Jeong, Eun-Ju(2005). A study on value of work and career consciousness of general high school,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1-56.
- Joo, H. S. & Bang, H. J.(2006). The effect of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interpersonal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t. In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d.), Proceedings of the 2006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84-285.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eoul
- Kalleberg, A. L.(1977). Work values and job rewards: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124-143.
- Kim, Eun-A & Jang, Keum-Seong(2012).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312-322.
- Kim, Eun-Jeong(1992).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Yonsei counseling research*, 8, 85-114.
- Kim, Ji-Young · Son, Hee-Jung · Kim, Tae-Jin · Choi, Yoon-Ho · Kim, Ho-Joong · Kee, Chang-Won · Kim, Ju-Hui & Hong, Kyung-Pyo(2004). The impact of application motives on medical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6(2), 207-218.
- Kim, Young-Sun & Seo, Ji-Yeong(2015). Construction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6), 1439-1452.
- Lea, Eun-Kyoung(2011).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youth work as a vocation and attendant levels of job satisfaction, *Studies on Korean Youth*, 22(1), 115-140.
- Lee, Ga-Ryoung(2014).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life-satisfaction and stress coping style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5), 659-665.
- Lee, Ji-Youn(2006). The change of juvenile's work valu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 25(3), 163~181.
- Lee, Kyung-Ah · Shin, Hae-Lin · Yoo, Na-Hyun & Lee, Ki-Hak(200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inventory-short form,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2), 739~754.
- Lee, Young-Ran · Kim, Sun-Hee & Chu, Min-Sun (2013). Stress, stress coping, and school adaptation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in freshme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Liu, Y. & Lei, Y.(2012). The connotation of work values: A Preliminary Review, *Asian Social Science*, 8(1), 47~53.
- Miller, M. F.(1974). Relationship of vocational maturity to work valu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 367~371.
- Park, Hyun-Joo & Jang, In-Sun(2010).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14~23.
- Park, Jeong-Ran & Kim, Hae-Sun(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calling and self-esteem upon professionalism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2(1), 73~79.
- Park, Sun-Young(2012). The study for sense of the calling of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2(1), 63~72.
-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Seyedfatemi, N. · Tafreshi, M. & Hagani, H.(2007). Experienced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Iranian nursing students, *BMC Nursing*, 6, 11-20. DOI: 10.1186/1472-6955-6-11
- Shim, Ye-Rin & Yoo, Sung Kyung(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K),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4(4), 847~872.
- Steger, M. F. & Dik, B. J.(2009). If one is looking for meaning in life, does it help to find meaning in work? *Applied Psychology: Health and Well-Being*, 1(3), 303~320.
- Sung, Mi-Hae(2012).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8(1), 18~24.
- Super, D. E.(1970). *Manual for the work values inventory*. Boston: Houghton-Mifflin.
- Vansteenkiste, M. · Neyrinck, B. · Niemiec, C. P. · Soenens, B. · Witte, H. D. & Broeck, A. V.(2007). On the relations among work value orientations,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job outcomes: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80, 251~277.
- Whang, Sung-Ja(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Wollack, S. · Goodale, J. G. · Wijting, J. P. & Smith, P. C.(1971). Development of the survey of work valu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5, 331~338.
- Wrzesniewski, A. · McCauley, C. · Rozin, P. & Schwartz, B.(1997). Jobs, careers, and callings: People's relations to their wor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21~33.
- Yang, Kyung-Hee · Lee, Jeong-Ran & Park, Boc-Nam (2012).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junior colleg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5~13.
- Yoo, Jae-Yong · Park, Ju-Young & Woo, Chung-Hee (2015). Career attitude maturity, calling, and work as meaning affecting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among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5), 480~488.
- Zytowski, D. G.(1970). The concept of work value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18, 176~186.

• Received : 29 February, 2016

• Revised : 04 April, 2016

• Accepted : 11 May, 2016